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농촌일손돕기 나서

⌕ 오공환 기자 | ⓒ 승인 2026.05.21 15:03 | ☐ 호수 1062

평은면 사과농가 찾아 적과 작업 지원
영주농협 협업... 농번기 인력난 해소 힘 보태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욱)가 20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일원 사과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사과 수확의 시작 단계인 적과 시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농협과 협업해 진행됐으며, 영주·봉화지사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적과 작업에 힘을 보탰다.

적과 작업은 사과 품질과 생산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농가의 적기 작업이 중요하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민은 “사과 적과 작업은 시기를 놓치면 농사에 큰 지장이 생겨 걱정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내 일처럼 도와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조정욱 지사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적기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촌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 농업인과 상생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는 매년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